



## 사상 첫 '추석 농구' 열린다

개막 1개월 앞당겨 출범 첫 한가위 열전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총9경기 편성

'2015~2016 KCC 프로농구'에서 종전과 달라진 풍경들 가운데 하나는 추석에도 경기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남자프로농구가 추석 연휴에 경기를 갖는 것은 1997년 리그 출범 이후 처음이다. KBL이 올 시즌 개막을 이전 시즌보다 1개월 정도 앞당기면서 이번 한가위에는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쳐게 됐다.

KBL은 각 팀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석 연휴 경기일정을 짜다. kt의 경우 26일 LG와 창원 원정경기 후 27일 모비스와 부산 홈경기를 소화한다.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지역을 연고지로 삼은 팀들간의 맞대결을 추석 연휴에 배치해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각 구단은 선수단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일찌감치 대비했다. 장거리 이동이 수반된 원정경기가 예정된 팀들은 비행기와 기차표를 미리 예약했다. 또 원정 숙소도 일찍 잡아놓아 선수단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휴경기를 여는 팀들은 관중 동원에 힘쓰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 어느 정도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 구단의 공통된 얘기다. 휴경기 준비는 지난 시즌 설 연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지방 연고의 한 구단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상 설 연휴에는 관중이 많지 않은 편이다. 추석 연휴에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인데 얼마나 팬들이 경기장에 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남자프로농구는 26일부터 대체휴일인 29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 4일 동안 9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26일에는 LG-kt전과 동부-KGC전, 27일에는 KCC-LG전과 kt-모비스전, 오리온-삼성전이 벌어진다. 28일에는 SK-KGC전과 전자랜드-동부전, 29일에는 KCC-삼성전과 모비스-오리온전이 열린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 양수진 16번홀 홀인원 "자동차 받았어요"

양수진(24·사진)이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6언더파를 폭발시키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YTN-볼빅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우승경쟁에 뛰어 들었다. 양수진은 24일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16번홀(파3·174야드)에서 8번 아이언으로 친 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는 홀인원이 됐다. 부상으로 6000만원 상당의 수입자동차를 받았다.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결들인 양수진은 6언더파 66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장하나(23)는 7언더파 65타를 쳐 비씨카드레이디스컵에 이어 KLPGA투어 2승 기회를 잡았다.

### 손연재, 26~27일 국제 리듬체조 갈라쇼 참가

손연재(연세대)가 추석 연휴기간인 26~27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국제 리듬체조 갈라쇼인 '메이퀸 Q리드미올스타즈2015'에 참가한다. 이달 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끝난 2015세계리듬체조선수권 대회에 나선 손연재는 현재 국내에서 연기를 다지고 있다. 이번 갈라쇼에는 손연재 외에도 마르가리타 마몬, 알렉산드라 솔다토바(이상 러시아), 엘리티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몰한다. 입장권은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6만6000원(R석) ▲2만2000원(A석).

### IOC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순조롭게 진행"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5차 조정위원회가 24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 기간 내내 중앙정부, 강원도 및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구성할 7개 국제경기연맹 대표들도 참가해 각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더해줬다. 이러한 조인이 내년 초 테스트 이벤트 등 사전승인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tzoo@donga.com

# '당신을 감동시킨 골프장' 직접 평가하세요

##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XGOLF 소비자 선정위원 모집

1차 10월4일까지 골프장 이용후기 평가  
2차 10월5~18일 회차별 2명씩 라운드

국내 골프장은 생존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과거처럼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만을 고수하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경쟁시대에선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 골프 부킹서비스업체 XGOLF(www.xgolff.com)는 국내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가장 합리적인 운영과 최상의 서비스로 골퍼들을 감동시킨 골프장을 찾기 위해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선정한다. 첫 단계로 XGOLF에서 소비자 선정위원을 모집한다.

●소비자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BEST 골프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2015-2016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가의 회원제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이용률이 높고 골퍼들에게 문화를 활짝 개방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강, 롯데스카이힐 성주, 베어즈베스트청라, 실악선밸리, 서원힐스, 승주, 신라, 파인크리크, 파크밸리, 푸른솔포천 골프장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골프장은 선정 효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뽑았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서원힐스 골프장은 "골프장에 내장하는 고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내장 고객 중 이용후기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아졌다. 올해에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선정위원 모집 이벤트 |                    |           |      |        |
|-----------------|--------------------|-----------|------|--------|
| 회차              | 신청 기간              | 당첨자 발표    | 당첨인원 | 평가 라운드 |
| 1차              | 9월21일(월)~10월4일(일)  | 10월12일(월) | 2명   | 10월 중  |
| 2차              | 10월5일(월)~10월18일(일) | 10월26일(월) | 2명   | 11월 중  |

### ●소비자선정위원 모집 및 평가 과정은?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차와 2차, 그리고 최종 3차의 과정을 거친다. 1차는 XGOLF(www.xgolff.com) 홈페이지 내 68만 명의 회원들이 작성한 14만여 건의 골프장 이용후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했던 골프장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 별 평가 점수는 모두 공개로 진행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후보로 선정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선정위원과 전문위원(프로골퍼, 골프장 전·현직 CEO, 골프용품업체 CEO 및 기타 골프관계자 등)이 실시해 나간다. XGOLF는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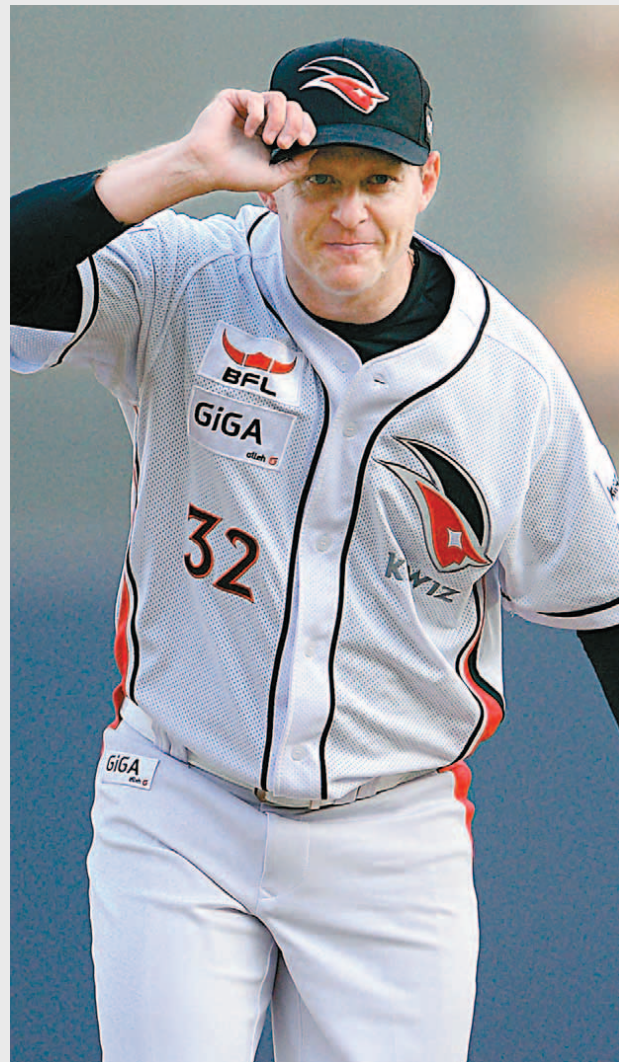
정에 참여할 소비자선정위원을 모집한다. 1차는 21일부터 시작해 10월4일까지, 2차는 10월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며 회차별 2명씩 선정한다. 소비자 선정위원은 평가자문위원과 함께 후보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고 라운드를 실시하면서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코스(난이도·레이아웃·페어웨이 및 그린의 관리), 서비스(캐디·식음료·주차 등), 편의시설(식당·라커룸·기타 시설) 등을 세분화해 부문별로 평가한다. 최종 3차 평가에선 1·2차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전문위원들의 평가점수를 더해 12월 중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선정·발표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 ■프로스포츠 '장수' 용병...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낼까

한국 고유의 명절 한가위는 이방인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돈을 따라 머나먼 한국 땅을 밟은 외국 선수들에게 추석과 한국문화는 이질적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한국에서 생활해온 '장수' 용병들에게는 한가위도 이미 친숙해진 한국의 여러 풍경을 가운데 하나다. KBO리그, K리그, KBL에서 용병으로만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로부터 한국과 한가위에 대한 감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전남 스테보 "올 추석엔 서울 갑니다" 아들·딸 위한 2박3일 휴가



"온 가족 모여 함께 요리한 음식 즐겨"  
프로야구 kt 옥스프링

호주 출신 크리스 옥스프링(38·kt)은 2007년 처음 한국 프로야구에 진출해 2008년까지 2년간은 LG에서 뛰었다. 현신적 품성과 뛰어난 성적으로 주목받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2시즌 만에 한국을 떠나야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한 책임감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덕분에 2013~2014년 롯데에 이어 올해는 kt에서 뛰고 있다. 선수생활 마감 이후 한국에서 코치를 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나다.

옥스프링이 기억하는 한국의 추석에 대한 첫 인상은 동료들의 배려다. 옥스프링은 세 자녀를 둔 가정이다. 시즌 도중 자주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함께 머물며 지냈던 정에도 동행한다. 그는 "동료들이 추석 연휴 때는 식당도 대부분 문을 닫고 마트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위해 미리 식료품을 사줘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경기가 있을 때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도 한국 고유의, 그리고 최대 명절을 맛볼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 때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요리한 음식을 즐겼다"고 말했다.

고국의 명절에 대해서 "부활절이 한국의 추석과 가장 비슷한 것 같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고 추억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선수단 휴가 맞춰 가족과 서울로 역귀성"  
K리그 전남 스테보

마케도니아 출신 스테보(33·전남)는 K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형' 용병이다. 전북(2007년 1월~2008년 7월)과 포항(2008년 7월~2009년 12월)에서 1년 반씩, 수원(2011년 7월~2013년 8월)에서 2년을 보냈다. 전남에는 지난해 1월 입단했다. 분요드코르(우즈베키스탄)~암카르 페름(러시아)~쇼난 벨마레(일본)에도 잠깐씩 몸담았지만, 선수생활의 대부분을 K리그에서 지낸 터라 한국어 실력도 수준급이다. 자신을 "테보 형"이라 부르며 따르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다보니 타 구단 용병들도 그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온다.

당연히 한국문화도 잘 이해한다. 한가위가 설과 함께 최대 명절이라는 것, 서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잘 안다. 지인이나 구단 스태프와 대화할 때 '추석'이란 단어를 포박포박 사용한다. 물론 직업상 시즌 중 명절을 전부 즐기진 못한다. 집이 있는 전남 순천 일대를 관광하거나 가족과 조촐하게 외식을 하는 정도다. "제대로 놀려면 좀 멀리 떠나보라"는 전남 노상래 감독의 권유에 그는 "차가 막혀 움직일 엄두가 안 난다"고 대꾸한다.

올해는 다른 선택을 했다. 선수단 휴가에 맞춰 가족과 '역귀성'을 준비했다. KTX로 서울에 올라와 특급호텔에 숙박하며 롯데월드를 다녀오는 등 어린 아들과 딸을 위한 2박3일간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기일정 빠듯...팬이 딸에게 한복 선물"  
프로농구 KCC 포웰

미국 출신 리카르도 포웰(32·KCC)은 남자프로농구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외국인선수 중 한명이다. KBL에서 5시즌째로, 올 시즌 20명의 외국인선수 중 애런 헤인즈(34·오리온스·KBL 8년차) 다음으로 많은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장수' 용병이다. 2013~2014시즌부터 2년간 전자랜드의 주장도 맡아 팬들에게 '캡틴 포'로 불리기도 했다. 올 시즌 정든 전자랜드를 떠나 KCC에 새로 등지를 들었다.

포웰은 구단 관계자의 도움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돌아다니고, 숙소 근처 사우나를 찾아갈 정도로 한국생활에 익숙하다. 그러나 명절 문화를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다. 그는 "추석과 설이 큰 명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즌 일정 때문에 숙소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KCC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일정이 빠듯하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3경기를 치른다. 포웰은 "전자랜드 시절, 명절에는 숙소 식단이 평소와 달랐다. 떡이나 전이 있었다. 명절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걸 알았다. 아, 한복도 알고 있다. 전자랜드 팬 분이 내 딸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한국은 정이 많은 곳이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